

##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2년 설교 (금빛 새벽 성경의 예언)

### 1. 성경과 예언

2012. 1. 1.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신묘 년이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임진년이 되었는데, 임진년이라 하니 임진왜란이 생각납니다. 금년은 평화와 행복의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만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으니 한갓 소망일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애청자들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년은 성경의 예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 어떤 것이며 또 역사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으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나성중앙교회 부목사로 봉직하시는 김영진 목사님과 대담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서로 듣도록 권고하셔서 많은 애청자들이 예언의 인도아래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벤후1:19~21]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샨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1. 애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김명호 목사님과 대담할 김영진 목사입니다. 김명호 목사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동안 라디오 설교를 하셨습니까? 매 시간 몇 분간 말씀을 하셨는지요?

답: 1년 반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한 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담당 PD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음은 30분간 말씀을 했는데, 로마린다 교회 전인석 목사님과 대담으로 보냈습니다.

2. 그랬었군요. 대담으로 하시니까 좀 수월했습니까? 또 반응은 어땠는지요?

답: 반응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애청자들 편에서 좀 듣기가 편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전화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기도 했으니 아마도 혼자 강론한 것보다는 애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전(全) 목사님과 대담을 계속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답: 예, 제가 한국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여러 곳에 집회를 다니게 되니까, 미국에 계신 전 목사님과 만나서 대담할 시간을 만들 수 없었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전 목사님이 씨애틀 교회로 전근을 가시니 계속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김 목사님께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4. 세계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 집회 다녀오셨군요. 오래 계셨네요. 3개월이라니까.

답: 예, 지난 해 9월 26일에 가서 12월 15일에 들어왔습니다. 가던 그 주말부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 총회기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하는 은혜도 누리고 왔습니다.

5.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경과 예언인데 성경과 예언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 예, 그 관계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이라고 번역한 말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예언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이 세상일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들을 한 정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선지서로 구분된 말씀들이나 특히 다니엘서, 또한 요한 계시록 같이 역사적 사실들을 예언한 내용들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6.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미래에 대한 사실을 미리 말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 참 중요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면 일반적으로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전(辭典)적인 정의(定義)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반드시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자 또는 선지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비와 네비임인데, 이 말은 장래의 사건이나 사실을 미리 말한다는 뜻이기보다는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과 대신하여 말 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언자(代言者), 또는 대언서(代言書)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21에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사실을 주시면 선지자는 과거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고, 현재 사실을 주시면 현재 사실을 말해야 하며, 미래의 사실을 주시면 미래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바로 이런 성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말해도 과거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많고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말씀도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말씀보다 과거와 당시에 대한 말씀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전부 미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7.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쉽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쳐놓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나 단어나 문단만을 생각하거나 기록된 사실이나 사건만을 생각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이든 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명이나 목적을 도외시키고 글을 읽으면 읽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으로 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그렇게 읽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내용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지 않은 계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읽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벗어난 성경 연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8. 이제 목사님이 많지 않은 계시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많지 않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불경이나 유교 경전이다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하면 참으로 많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짧은 계시 안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아서 연구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교리를 만들고 자기 생각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기가 만든 구원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런 현상이 기독교계에 만연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나만의 생각인지도 모르지요.

9.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특별한 지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당연히 있지요.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읽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데로 해석하고 주장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어도 지침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으로 들은 것을 중심으로 또는 신학적 방법 등등, 성경이 지시하는 지침과 상관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례

가 허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다원주의 사상 같은 것도 성경과 상관없는 철학적인 방법이나 종교학적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반 종교론의 범주나 세상이 말하는 철학적 논리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가는 길을 따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미로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깨달아야 합니다.

10. 예, 목사님, 바로 그 지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답: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옛 이야기에 아버지가 한문으로 쓴 유언을 쓴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읽어서 엉뚱하게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70이 되어서 상처한 무남독녀뿐인 부자 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늦게라고 아들을 보려고 젊은 처녀에게 새장가를 갔다는군요. 노인에게 시집오는 젊은 처녀는 어떤 사정이었겠습니까? 아주 가난에 찌든 가정의 처녀이지요. 노인이지만 부자니까 시집을 가서 아들이라도 낳으면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친정도 넉넉히 도울 수 있을 것이니 내 한 몸 희생하여 친정 식구도 살리고, 뭐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겠지요. 그런데 정말 결혼 한지 1년 남짓 지나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을 지날 무렵 이 노인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노인이 자기 병을 생각해보니 회복이 어렵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젊은 부인이 병 수발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아무래도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걱정은 저 어린 것에게 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인데, 만일 그렇게 하면 저 딸이 어떤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네. 그렇잖아도 내가 새장가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또 욕심이 많거든. 내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제 것이 될 것인데, 자네가 아들을 낳았으니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야. 그러니 저 어린 것에게 상속하라고 유언을 하면 저것을 해코지하고라도 재산을 차지하려고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저것이 해코지 받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언을 써야 하나 그것이 걱정이네.”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지요. 딸 식구들과 젊은 부인과 겨우 발자국 떼는 아들과 친척들이 임종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딸은 자식들이 이미 장성한 상태였답니다. 노인은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유언을 써서 베개 밑에 넣어두었으니 장례 다 끝나거든 보거라.” 그리고 숨을 거두었고, 장례식 아주 잘 치른 다음에 유언을 뜯었지요. 거기는 창호지에 아주 정성드려 한 줄로 내려 쓴 유언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七十生子非吾子家産傳之擘他人勿取.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칠십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은 사위에게 전한다.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마라가 됩니다. 딸은 입이 떡 벌어져서 70이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알았구나, 젊은 계집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속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한대로 유언을 집행했지요. 다른 사람들도 의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이 젊은 엄마는 얼마나 어굴합니까. 멀쩡하게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았고, 영감님이 죽기 전에 한 말과는 너무나 엉뚱한 유언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날마다 영감에 대한 한 맺힌 소리만 질렀겠지요. 그래도 그 딸이 생활할 만큼 재산을 쫓기에 먹고 살기는 했지만 마음에 원망이 없어지지 않았지요. 아들이 약관이 되었습니. 엄마의 말을 종합해서 생각하니 아무래도 그 유언에

사연이 있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인이 된 누님을 생전 처음으로 찾아갑니다. 누님은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들보다 어린 동생이 찾아오는 것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요청대로 유언을 내 주었습니다. 아들은 읽어보니 그 해석이 맞거든요. 고개를 가우뚱거리다가 그 유언을 잘 베껴 쓴 다음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변호사가 처음에는 누님이 해석한 것과 같은 해석을 했는데, 아들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다시 그 유언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보게, 자네 부친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네. 이것은 아들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이네. 소송하면 내가 재산을 찾아주겠네.” 그래서 소송했고 이겨서 재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처음에는 일반적 생각으로 유언을 읽어보니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을 사위에게 전한다. 타인은 취하지 마라라고 읽었는데, 아들 얘기를 들은 후에는 그 유언을 쓴 아버지 생각으로 읽게 되었지요. 자세히 살피니까 그것은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는가? 가산을 전한다. 사위는 타인이다. 취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지요. 아버지가 한문 띄어쓰기를 교묘히 인용하여 딸이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방어조치와 함께 어린 아들에게 재산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즉 七十生子非吾子라는 말 다음에 의문 부호를 붙였고, 家産傳之까지 띄어 읽고 또 墮他人까지 띄고 勿取를 읽은 것이지요. 아버지가 바로 그런 생각으로 이 유언을 쓴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이 해코지 받지 않고 상속받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러니 유언 쓴 사람의 생각으로 읽는 것과 그렇지 않게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어야 바르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천양지차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55:8,9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땅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늘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읽을 수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11. 목사님,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답: 그렇지요. 오늘 시간도 다 되는데 말씀드려야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16:12,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깨들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전 2:9절로 14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읽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

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이 감히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교통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나누지요.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읽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